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코리아 설교 19회

19. 성경 예언과 구주(8.28.10. 19회)

2010년 8월 28일(안식일 아침)

[벧후1:19~21]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샅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20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序; 지난 시간에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기별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별이었습니다. 천국은 은혜의 천국과 영광의 천국이 있는데, 영광의 천국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영원한 나라이지만 은혜의 천국은 예수께서 은혜의 왕으로 계시는 기간 동안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에 예수께서 마음에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인격 천국을 뜻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인격 천국으로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인격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인격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은 천적으로 성경의 사상이며 천국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도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 사람됨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구원 사업을 이루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은 구약성경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주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성경 계시의 중심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이 되었을 때 사망이 된 사람들을 다시 생명으로 옮겨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미리 가르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장래에 대한 역사적 예언이 아니라도 성경을 예언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행하실 구원 사업을 가르쳐준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어야 바르게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눅24:26,27]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눅24:44,45]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요5:39,40]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2. 예수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들

예수님과 그분의 하실 일에 대한 것이 예언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것들은 아주 명백하게 기록하였고 어떤 것들은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로는 **구주께서 어떻게 탄생하실 것인지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탄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주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 이미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말씀 드릴 때에 자세히 말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구주는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셔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와 상관없이 오직 여자에게서만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려면 남녀가 동침해서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와 만나야 하지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세상 남자의 정자 없이 오직 여자의 몸만으로 잉태하여 탄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의 참 뜻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곧 순결한 처녀에게서 탄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탄생하셨지요.

[마1:22,23]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과연 구주 예수님은 순결한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 4:4에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탄생하실 장소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였고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미5:2]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마태는 이 예언의 성취를 잘 기록했습니다.

[마2:1~6]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뇨 물으니 5 가로되 유대 베들레헬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 또 유대 땅 베들레헬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

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구주께서 언제 탄생하시며 언제 죽으실 것인지도 예언되었으며 바로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벧전1:10~12]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했다고 계시합니다. 구약성경에는 구주께서 오실 때와 고난 받으실 때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예언은 또 분명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도 이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예언된 때에 예언된 장소에서 예언된 방법으로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이런 있으리라한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마26:54)

그러면 이 때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할 만한 일이지요. 그것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9:24~27]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26 육십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선지자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 되어간 유대 사람이지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되어 바벨로 총리가 되었으며 바벨론이 망한 후에도 메데 사람 다리오가 2년간 통치할 때도 총리로 일했습니다. 그는 메데 사람 다리오가 통치를 시작한 원년에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포로가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단9:1,2] 메데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2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칠십 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사실을 확인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자기의 허물과 죄로 여기면서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에 천사는 아주 중요한 기별을 전합니다. 그것이 이미 봉독한 단9:24~27의 내용입니다. 천사는 이 내용을 말하기 전에 23절의 내용을 말합니다.

[단9:22,23]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

나니 23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 전에 어떤 이상, 곧 계시를 보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단8:26,27]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27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사실이 바로 주야 즉 낮과 밤에 대한 이상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주야에 대한 이상은 8:14에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9장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그 이상, 곧 전에 깨닫지 못한 주야에 대한 이상을 깨달으라고 한 것이 확실합니다. 8장의 계시는 9장보다 10년 쯤 전에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3년에 보여주신 계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0여년을 답답하게 지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본 그 주야에 대한 계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포로가 70년 동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의 7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는 걱정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2300주야의 계시가 이스라엘의 포로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와서 엄청난 기별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2300주야에 포함된 70 주일 기간에 대한 기별이었습니다. 그 계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말이 있고, 메시아가 고난당할 사실과 고난의 시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구주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에 대하여 예언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그것은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깨닫도록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70 이레 곧 70 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단9:24이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단9:24입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질 사건들의 내용입니다. 여섯 가지 사실이 이 70주일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곧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함을 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나누면 앞에 셋은 죄를 속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뒤에 셋은 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기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단9:25,26]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26 육십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임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5절에 말씀한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메시아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기름부음 받은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타나실 것인지를 그 때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때는 70이레 기간 중에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난 때입니다. 7 이레는 49일이지요. 한 이레 곧 1주일이 7일이니까 1주일 7번 있으니 49일입니다. 그리고 62이레는 1주일 62번이니까 434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날 때부터 483일이 될 때라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건 명령은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렸고, 또 다리오 2년에 내렸고 아닥사스다 7년에 내렸거든요. 고레스의 조서는 기원전 538년이고, 다리오의 조서는 기원전 520년경이고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기원전 457년에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명령 중에 어느 때를 시작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당연히 마지막 명령이지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말을 들었거나 글을 읽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예루살렘 중건 령이나 성전 중건 령이 아니고 유대인 귀환명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예루살렘 성전 중건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신학적 논리를 다 설명하려면 복잡하기도 하고, 또 복잡해서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단순히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면 아주 단순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예루살렘 성전 중건 명령이 있다는 사실은 에스라 8:36에서 확인 됩니다.

[스8:36]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 서편 총독들에게 부치매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이 말씀에 있는 왕의 조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입니다. 7장에는 조서의 내용 중에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왕의 조서 내용이, 조서 전문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7장의 조서 내용도 조서 내용 전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적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다고 알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군요. 아무튼 8장36에 말하는 조서는 아닥사스다의 조서입니다. 강 서편 즉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총독과 관리들이 이 조서를 받고 곧 하나님의 전을 도왔고 백성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도왔다는 말은 성전 재건을 도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는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는 말입니다. 이 8:36을 현대 번역들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했습니다.

새번역은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은 [황제의 칙서를 받은 유프라테스 서부지방 지방장관들과 총독들은 백성을 도와 하느님의 성전 짓는 일을 거들었다.]고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런 다음 그들이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과 관리들에게 황제의 명령이 적힌 편지를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런 번역들은 개역성경에 성전을 도왔다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아무튼 예루살렘 중건 명령으로부터 483일이 되었을 때 메시아가 일어날 것인데, 그 시작이 아닥사스다 7년에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내린 때부터라는 말입니다. 이때는 기원전 457년입니다. 그러면 이

때부터 483일이면 겨우 1년 3개월 10일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리고 조서를 받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조서가 지시한대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면 기원전 457년 유대달력으로 7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1년 3개월 10일이 지나도 여전히 아닥사스다 8년이 될 뿐입니다. 아닥사스다 8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다 완성되었는지도 모르고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아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났으며 그때는 로마가 통치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70 이레 곧 490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하루씩 490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성경을 연구하면 이런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조치를 성경 안에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겔4:6]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일 일이 일 년이니라.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 또는 표상적으로는 성경의 하루가 실제 연대로는 1년이라고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70이레 490일은 실제 연대로는 490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의 명령이 내린 기원전 457년부터 7이레 곧 49년과 62이레 곧 434년이 될 때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말이 됩니다. 49년과 434년을 합치면 483년이지요. 그러니까 70이레 중에서 69이레가 되었을 때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어느 시 어떠한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기원전 457년에서 483년을 지내면 기원 27년이 됩니다. 이때에 바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 것입니다.

[행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베드로는 이 사실을 고넬료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70이레 기간에 메시아가 끊어지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예언합니다.

[단9:26] 육십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육십이 이레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과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3년 반을 공중 봉사를 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빌라도의 언도를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 사실은 다니엘 9:27에 기록되었습니다.

[단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70이레 곧 490년 중에 69이레 곧 483년이 지났으니 이제 남은 것은 1주일 곧 7년만 남았습니다. 이 7년 동안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굳게 정합니다. 그것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하여 확실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과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미 앞에 말씀 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언약을 상기시키고 굳게 하는 일

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부지런히 봉사하셨습니다. 다니엘에 기록된 대로 그 기간은 유대인을 위한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봉사하시다가 이레의 절반 곧 3년 반이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극성스럽게도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던 일을 더 이상 소용이 없도록 조치하셨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표상했던 메시아가 실제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의 내용과 그 성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영감으로 알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그렇게 밝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하여 때와 시를 선지자들이 예언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자기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주에 대하여 이렇게 명확한 예언을 주셨으며, 그 예언은 아주 확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13:19]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언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그 예언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70이레 예언에서 이 기간 동안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여부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 여부에 대한 표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메시아와 그분이 이루실 사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 예언의 핵심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예언들은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을 수 있는 조처를 완벽하게 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웠는지, 자기의 체험이나 이적 위에 세웠는지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3. 확신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것인지요.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역부족이기도 하지만 당시 풍습에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주변에는 여자들이 있었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공회 회원이며 부자인 아리마데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 예수를 찾아와서 거듭남의 도리를 배운 숨은 제자였습니다. 아리마데 요셉도 숨은 제자였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요19:38]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회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만역 죄인으로

로 처형된 지금 더욱 숨고 예수와 완전히 등을 돌려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드러나게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 일 후에**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 일 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예언한 사실이 예수님께 확실하고 정확하게 성취된 사실 후에** 라는 말입니다.

[요19:33~36]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리마데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성경에 예언을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하시는 일이 성경 예언과 일치하는지를 체크하였고 그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시점에 오히려 나타나서 예수님을 장례하였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바로 이렇게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세상에는 속임수가 너무나 많고 사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궁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지 않고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조치를 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예언을 연구하고 예언을 따라 확인된 진리 위에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업을 다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 진리의 사람이 되어 오늘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실 사실을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을 따라 구주를 세상에 보내셔서 아무도 속지 않고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구주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 아리마데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성경 말씀, 특히 예언된 대로 확실히 이루어진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주장으로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증거의 삶을 이루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